

SOC에 40兆 투자, 경기 회복 주도

SOC 관련 7개 공기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국토부 산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공공기관은 30일 청와대에서 내년 투자비 확대와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회복에 앞장서는 한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효율화를 꾀해 가겠다고 보고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내년에 투자할 사업비는 40조3천887억원. 이는 올해보다 17.5%나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15조8천112억원(10.4% ↑)으로 가장 많다. 주택공사는 건설공사비로 9조9천59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5조8천522억원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사업자금 61% 내년 상반기중 조기집행

도공, 순찰업무 60% 민간 위탁...철도공, 정원 16% 감축

주택공사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2만가구를 포함해 12만7천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기준)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도 올해보다 26.3%가 증가한 12조6천9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공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 확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보다 31.8%가 늘어난 6조997억원을 내년도 투자 예산으로 잡았고 도로공사는 2조7천961억원(19.3%), 철도공사는 1조1

천450억원(7.7% ↑), 수자원공사는 1조6천810억원(6.2% ↑)을 내년도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SOC관련 공공기관은 또 내년도 투자비중 6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24조5천236억원으로 내년 전체예산의 60.7%이다. 올해 상반기 집행비율이 51.8%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가장 높은 것이며 올해 상반기 집행된 금액이 17조7천95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조7천286

억원이 많은 것이다.

조기집행을 위해 토지공사는 대규모 사업지 조기보상과 50억원이상 공사 긴급발주, 선급금 지급을 20% 상향조정 등을 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공법개선을 통한 동절기 공기 단축으로 4천68억원의 공사비가 2개월가량 조기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도 모든 신규 공사는 긴급발주를 할 계획이며 철도공사는 사장을 위임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추진반을 꾸릴 계획이다.

7개 기관은 이외 경영효율화를 위해 강도높은 인원감축도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2012년까지 507명, 11.1%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통행료 수입 업무를 올해 민간에 완전 위탁한 데 이어 내년까지는 단순유지보수업무도 민간에 위탁 완료할 계획이다. 또 안전순찰업무의 60%는 2012년까지 민간에 넘길 구상이다.

철도공사는 정원의 15.9%인 5천115명을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 수준의 수의 증대를 목표로 현재 181회인 KTX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 2011년에는 316회로 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정원을 10%(159명) 줄이겠다고 보고했으며 수자원공사도 11.2%인 475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

주요 공공기관의 2009년 투자 확대 내용

· 사회간접자본(SOC)	올해 34.4조원 → 내년 40.4조원(17.29%)
대한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12만호를 포함한 12만7000호 주택 신규건설 등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유하 등 신형정질처리 단축 등으로 조기 착수
한국토지공사	민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임대사업단지 공급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등 6개 사업 43개 공구 신규 착공 등
한국철도공사	녹색성장 위한 친환경 전기차량 구입 등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등 신규노선 193km 개통, 7개 구간 123km 사업 발주 등
· 에너지	올해 12.1조원 → 내년 14.8조원(21.61%)
한국전력 및 5개 발전 회사	원전수출 및 해외지원시장 진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건설 및 중저석유기법 M&A
대한석탄공사	매년 150만~200만t 부족한 국내 무연탄 공급안정대책
한국가스공사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위한 북한 경우 공급노선 타당성 조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올해보다 6.1% 늘어난 109만5000호의 공동주택에 지역 난방 공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 유망 광구 저가 매수
한국수력원자력	8개 원전 건설사업 및 발전설비 투자규모 40% 이상 대폭 확대
에너지관리공단	2020 그린홈 100만호 달성 위한 1만2000가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 기타	올해 1.65조원 → 내년 1.98조원(19.54%)
한국조폐공사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 확대 위한 해외진출 및 투자 등
한국관광공사	국내 관광 활성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자체 사업비 투자 확대
한국마사회	승마인구 현재 2만명에서 2012년까지 5만명으로 확대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대형 유통업체와 직수출 네트워크 구축 등

돈 필요한 기업·가계 신속 지원

산업銀, 지방산단 조성에 1조원 지원

7개 금융 공기업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들은 3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기업과 가계에 130조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66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금융공기업들은 내년에 일시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85조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각각 11조 원, 9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 중 14조5천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어려운 중소기업(8조5천억 원)과 플랜트나 선박 수출업체 등의 기업에 총 44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10억 달러(13조 원 수준)의 외화유동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5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기업은행이 3조7천억 원의 가계대출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기업 시설투자에도 44조 원을 풀

기로 했다. 이 중 녹색성장산업, 성장동력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 18조여 원이 지원된다.

또 산업은행은 기업의 회사채와 중소기업 주식을 7조 원 어치 사들이기로 했으며 지방산업단지 조성에도 1조 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설비투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창업 등을 위해 13조5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신용과 기보는 창업 지원 등을 위해 각각 19조5천억 원, 5조7천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과 어려운 학생 살리기에 나선다.

캠코는 채무 재조정과 환승론의 형태로 72만 명의 금융소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서민들에게 6조6천억 원의 주택 보증과 9천400억 원의 주택연금 보증을 지원키로 했으며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의 자산유통화증권(ABS)에 5천억 원 규모의 신용을 보장해줄기로 했다. 공사는 또 2조3천억 원 규모의 학자금 대출에도 보증을 제공해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로 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09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담대한 마음으로 어려움 대처해야”

올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놀라서 소심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려려 담담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한해) 후회도 있고 보람도 있었다”면서 “발전하는 조직은 어려움속에서 배우는 만큼 같은 실수를 두번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잡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발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밋밋할 때 보다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일한다는 게 어찌 보면 보람이고 행복일 수 있다”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철철한 사명감과 의식을 갖고 전도사 역할을 해달라. 그래야 공직사회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대강 주변에 ‘친환경 테마타운’

영산강 배수갑문·수로 확장 등에 4천억 투입

농촌공·유통공·마사회

정부의 역점시책인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농업용 저수지가 재개발되고 4대강 주변에 친환경 테마타운이 생긴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역 내 저수지들의 독을 높이고 수문을 설치해 저수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한강 유역 24곳, 낙동강 유역 36곳, 금강 유역 24곳, 영산강 유역 9곳 등 총 96곳의 독을 높여 수량을 7억400만t 늘린다는 목표다. 모두 2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또 영산강 홍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하구 독의 배수갑문과 수로를 확장하고 생태 복원, 수질 개선 등에 4천11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4대강 인근 저수지를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 자원으로 연계해 휴양 공간인 친환경 테마타운으로 새 단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시민과 젊은 영농 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5곳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한다.

한국마사회는 가칭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친환경 말 산업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말의 생산·육성·유통(경매시장) 개선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마사회는 또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을 벌여 2만명 수준인 승마 인구를 2012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승마장·경마장 건설로 1조원, 승마·경주마 등 말 생산으로 800억원, 승마·경마 분야 인력 고용으로 7천600억원 등 2조6천2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고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마사회는 분석했다.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강변에 거점 승마장을 만들고 전국의 저수지 주변을 개발해 승마관광 코스로 만드는 방안도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마사회가 5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500억원을 조성에 중소기업에 잔 이자로 융자해줄 계획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김치, 인삼, 파프리카, 버섯 등 이미 경쟁력을 갖춰 2012년까지 1억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는 15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이와 연계해 품목별로 수출을 선도할 대기업을 키우고 소규모 농가들이 연합해 품목별 수출 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산지 농민과 소비자 기업을 인터넷상으로 연결하는 사이버 거대소를 내년 1월 개설한 뒤 10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까지 거래 규모를 6천억원으로 키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국어(中國語)로 대학 입학하기

대한을 디자인 해드립니다!!

리틀차이나 中國語 學院

www.littlechina.co.kr

2009학년도 9월 中國 명문대학 입학반 모집

2009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포럼

● 2009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포럼

● 2009 중국대학 입학반 모집포럼

중국어 교육의 선두주자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1월 2일 겨울방학특강 대개강

북경대 칭화대 입시준비반

- 북경대 입시준비반
- 칭화대 입시준비반

한국외국어대학 수시입학준비반

- 한국외국어대학 수시입학준비반
- 한국외국어대학 수시입학준비반

중국어 교육의 선두주자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1월 2일 겨울방학특강 대개강